

활동 지도안

활동주제	나무이름표 만들기				활동 시기	4월	
활동목표	학교 교정 나무의 나무이름표를 만들어 달아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찰할 수 있다.						
활동자료	식물도감, 종이, 필기도구, 유성펜, 색연필, 코팅지, 펀치						
활동유형	관찰, 표현	시 간	80분	활동인원	30명	장 소	교실
단 계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 입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가 알고 있는 나무의 이름을 발표한다. - 학교 교정에 있는 나무에 대하여 아는 것을 발표한다. • 학습 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정의 나무를 관찰하고 나무이름표를 만들어 달아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찰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정에 있는 나무에 대하여 교사가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더 좋을 것이다. 	
전 개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정에 나가 나무를 관찰하고 나무의 이름을 알아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도감에서 나무를 찾아서 함께 이름을 찾아본다. • 활동순서(1,2차시로 나누어 활동해도 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교 교정에서 각자가 이름표를 만들고 싶은 나무를 정한다. ② 정한 나무에 대하여 식물도감에서 나무에 대한 설명을 찾아서 간단하게 정리한다. ③ 나무이름표에 적을 내용을 정한 후에 이름표를 만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무이름, 꽃이 피는 시기와 꽃 색깔, 열매의 모양, 나무의 쓰임새, 나무이름의 유래 등이 들어가도록 안내한다. -나무이름표의 크기는 가로 20cm, 세로 15cm 정도로 한다. -나무에 대한 설명을 연필로 먼저 쓰고 난 후 유성펜으로 그 위에 덮어서 다시 쓴다. -완성된 후에 코팅을 한다. -나무이름표에 펀치로 구멍을 내어 나무에 걸 수 있게 만든다. ④ 학교 교정에 나가 나무이름표를 걸어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식물도감을 미리 준비하여 학생들과 함께 나무 이름을 찾는 과정도 하는 것이 좋다. • 교정의 나무수종에 대하여 미리 알려줄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식물도감, 필기도구, 유성펜, 색연필, 코팅지, 펀치 • 나무이름표의 크기와 모양은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하여도 된다. 	
정 리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이름표를 만들면서 느꼈던 점을 발표한다. • 나무이름표를 나무에 걸고 난 후의 느낀 점을 발표한다. • 나무이름표를 걸어 준 나무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안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지 • 필기구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이름표를 만들어 걸어 준 나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찰하게 되면 생명에 대한 신비함과 경외심 등을 느끼게 될 것이다. 						



활동지

나무이름표 만들기

()학년 ()반 이름 ()

1. 내가 나무이름표를 달아 준 나무에 대하여 관찰한 내용을 써 봅시다.

[나무이름]

[나무전체의 모양]

[나무줄기의 느낌]

[잎, 열매, 꽃의 특징]

2. 내가 이름표를 만들어 준 나무의 이름과 내용을 써 봅시다.

[나무이름]

[이름표의 내용]

3. 나무이름표를 만든 후의 느낀 점과 앞으로의 나의 다짐을 써 봅시다.



참고자료

1. 나무의 정의

순수한 한글로서의 나무는 살아있거나 혹은 베어서 뿔감으로 만든 것을 모두 칭하지만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나무는 수목(樹木, tree)이라고 한다. 편의상 종자식물을 크게 초본식물과 목본식물로 나누는데 온대지방에서 목본식물의 기준은 겨울철에 지상부가 살아남으면 목본식물이며 지상부가 전부 죽으면 초본식물이라고 한다. 또는 목질을 형성하는 주성분인 ‘리그닌’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리그닌이 있으면 나무, 없으면 풀이라고 한다.

또한 나무는 초본식물(풀)에서 볼 수 없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 1) 몸체가 크다. 지구상에 있는 생물 중에서 가장 큰 생물로서 가장 큰 세코이아나무는 키가 112미터에 달하고 지름이 10미터나 된다.
- 2) 오랫동안 살아간다는 것이다. 소나무류는 5천 년간을 살아남기도 한다.
- 3) 생식생장(개화와 결실)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년생 식물은 열매를 맺고 죽지만, 나무는 여유를 가지고 성숙할 때까지 기다렸다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 4) 나무는 오랜 세월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많은 적설에 견딜 수 있으므로 곧추선 형태를 지닌다.

2. 나무상식

대나무는 나무인지 풀인지 논란이 많은 식물이다. 오래 살고 단단한 목질부가 있어 나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관다발형성층이 없어 부피생장을 못하고 속이 비어 있으므로 풀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 이처럼 나무와 풀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서 대나무류로 따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으나 식물학적으로는 풀로 보는 것이 맞다.

3. 나무와 풀의 차이점

식물은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크게는 나무와 풀로 나누는데 그 기준은 단단한 목질인가 목질이 아닌 것으로 한다.

풀은 목질부가 없어 단단하지 않으며 주로 겨울에는 활동하지 않는다. 꽃이 피고 씨앗을 맺고 나면 죽어서 한해살이풀과 여러해살이풀로 나누며 여러해살이풀이라고 해도 나무처럼 오래 사는 것은 아니다. 부피생장을 하지 않아 굽지 않으며 주로 생식생장에 주력한다. 환경에 대한 저항력도 나무보다 약하다.

나무는 목질부가 있어 단단하며 겨울에서 살아서 활동한다. 오래 사는 편이며 부피

생장을 하기 때문에 몸체가 크다. 영양생장에 많은 에너지를 쓰며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다.

[풀]



<꽃마리>



<냉이>

[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4. 나무의 사계절

1) 봄

봄이 되면 나무의 뿌리가 가장 먼저 깨어난다. 지상의 눈들이 아직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섬세하고 부드러운 뿌리털의 차가운 땅을 헤집고 시린 물을 빨아들여 지상으로 옮겨준다. 이른 봄 뿌리들의 노력으로 물이 모아지면 메말랐던 줄기는 부풀어 오르고 윤이 난다. 나뭇가지마다 물이 오르기 시작하면 칙칙하던 숲 속에 초록빛 새싹들이 돋아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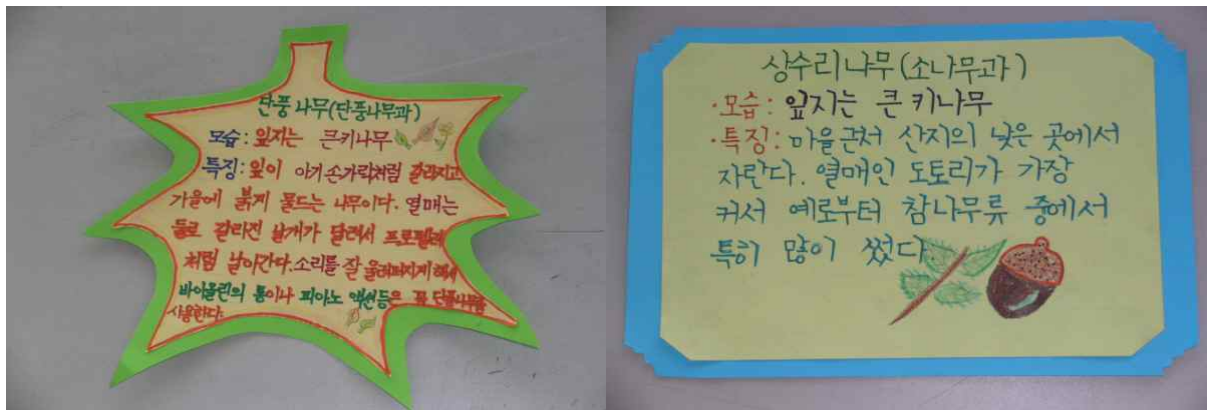
2) 여름

여름의 나무는 성장의 열정이 그대로 느껴진다. 가지마다 풍성하게 달리는 잎들은 나무의 생산성을 나타내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나무가 열장의 잎을 만든다면 열 장 중 두 장은 자신의 성장, 두 장은 꽃과 씨앗, 두 장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물질, 두 장은 스스로에게 저장, 두 장은 숲의 다른 생물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무성한 잎 사이로 지나 줄기 위로 꽃을 피워낸다.

3) 가을

가을의 나무는 기온이 갑자기 낮아지면서 엽록소가 급격히 파괴되어 나뭇잎은 더욱 선명하고 아름다운 단풍색을 가진다. 노란색으로, 붉은 색으로, 갈색 등으로 잎의 색이 변한다. 그리고 여름에 꽃 피웠던 자리에는 어느새 열매들이 맺혀있다. 열매 속에는 나무의 미래를 책임질 씨앗이 들어 있다. 맛있는 향을 내어 또는 예쁜 색으로, 바람에 날기 위한 날개로 씨앗을 멀리 퍼뜨리는 계절이다.

5. 나무이름표(학생들의 작품)



참고 문헌 및 인터넷 주소

1. 윤주복(2004). 나무 쉽게 찾기, 진선출판사
2. 불나무(강우근, 나은희)(2004). 공원에서 자연과 놀자-나무친구, 서울시 공원녹지과관리사업소
3. 생명의숲(2007). 학교 숲과 환경교육